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09(금) ~ 2023.06.15(목)

제공일시 2023 06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09(금) ~ 2023.06.15(목)

제공일시 2023 06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재추진

- 유럽연합(EU)이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보류했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을 이번 주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음
-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제는 프랑스 등 핵에너지 비중이 큰 나라들이 지난달 합의안에 반대해 일단 보류된 상태임
- 이에 EU는 법안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일부 국가들의 부담을 인정하는 내용의 선언을 첨부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회원국들이 합의한 내용을 재협약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EU의 교육책임
- 한편, 독일과 룩셈부르크 등 원자력 반대국가와 덴마크, 아일랜드는 EU가 빨리 법안에 대한 갈등을 없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음

(뉴스핌, 2023.06.12) 박공식 기자

2. EU, 전기차배터리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 유력

-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함
-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하여 2031년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임
-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며, 폐배터리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음
-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있는 만큼, 법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 관측도 나옴

(해럴드경제, 2023.06.15) 원호연 기자

(머니투데이, 2023.06.15) 김훈남 기자

3. EU, ESG 평가업계의 대규모 개편을 예고

- EU가 ESG 평가등급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는데, 매우 강력한 규정이라 사업 개편까지 강요할 수 있음
- EU 법률초안에 따르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평가등급 판매 및 벤치마크 개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함
- 또 유럽증권시장당국(ESMA)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규칙을 위반하면 연간 순거래액의 최대 10%를 몰릴 수 있음
- 이번 법안은 S&P, 무디스, MSCI, 모닝스타 서스네이널리티스 등 ESG 평가등급 판매해온 기업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EU집행위원회는 탄소노미에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순환경제 전환,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와 복원 등을 포함하도록 분류체계를 크게 확장했음

(Reuters, 2023.06.14)
Julia Payne, Tommy Wilkes 기자

(ESGToday, 2023.06.13) Mark Segal 기자

1. 국내선 못구하는 재생에너지...태양광 기업조차 'RE100' 가시발길

- 국내 기업들이 RE100 동참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음
- 삼성전자는 중국과 미국 사업장에서는 REC 구입,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 100%를 달성했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음
-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기준 폴란드와 미국 미시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 100%를 달성했으나 국내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낮아 전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율은 60%대 수준임
- 국내 사업장의 RE100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인데, 녹색 프리미엄을 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임

(뉴스1, 2023.06.09) 한재준 기자

2. 韓, 내달 부산서 IPEF14개 회원국 탄소시장 구축 제안

-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 간 탄소시장 구축방안을 다음달 부산에서 공식 제안함
- 이번 제안이 이뤄지면, 공급망 협정에 이어 두 번째 성과가 도출되는 셈이며, 2030부산엑스포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연계, 엑스포 부산 유치에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IPEF 제4차 공식 협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IPEF 역내 탄소시장 설계방안 정책연구용역 공고를 마친 상태이며, 연구과제 내용은 ▷기존 국제 감축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IPEF 역내 탄소시장 설계(안) 제안 ▷IPEF 역내 자발적 협력 파트너십 기본합의서 마련 등임

(헤럴드경제, 2023.06.13) 배문숙 기자

3. “2030년 탄소 감축량 10%는 수소로”... 두번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열렸다

- 국내 수소 분야 기업들의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14일 17개 회원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하는 2차 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서밋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 이날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서밋 이니셔티브’가 발표됐으며, 협의체는 오는 2030년 탄소배출 총 감축량의 10% 이상, 2050년 탄소배출 총 감축량의 25% 이상이 수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했음
- 또 협의체는 수소 정책 수립 시 산업계의 수렴된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함으로써, 사업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속도감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을 논의했음
- 또, 수소산업 핵심 주제별 사업 협의체 결성을 지원, 사업 주체들의 공통 이슈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음

(조선비즈, 2023.06.14) 정재원 기자

(에너지데일리, 2023.06.14) 변국영 기자

1. 화석연료 회사들의 넷제로 ‘대부분 무의미한 계획’

- 세계에서 가장 큰 112개 화석연료 회사 중 75개 기업이 넷제로 도달을 약속했지만, 넷제로 약속의 대부분은 주요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대체로 의미없다’고 발표됐음
-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 인텔리전스유닛’과 옥스퍼드대학이 공동운영하는 ‘넷제로 트래커’가 공개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목표가 스코프3 배출물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 않거나, 단기적인 감축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또 화석연료 회사 중 어느 곳도 화석연료 추출이나 생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지난해 11월 유엔은 그리워싱을 피하기 위해 ‘좋은’ 넷제로 전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기도 했음

(Reuters, 2023.06.13)
Gloria Dickie, Simon Jessop 기자

2. 포드, 첫 탄소중립 조립공장 개장

- 포드가 20억 달러를 투자한 독일 쾰른의 첫 탄소중립 차량조립공장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음
- 1930년에 설립된 쾰른의 포드 공장을 전기차센터로 개조한 이 프로젝트는 125헥타르 부지에 새로운 생산라인, 배터리 조립 및 자동화, 연간 25만대 이상 전기차 생산능력을 갖췄음
- 공장은 100% 인증받은 재생전기와 바이오메탄으로 운영되며, 외부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장은 전용 증기네트워크를 통해 탄소중립 열을 발생시킨다고 함
- 포드는 협력업체도 2026년 배출량 60%, 2035년까지 100%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며, 203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제조공장에 100% 현지 조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회사의 기존 목표를 추가했음

(ESGToday, 2023.06.15) Emily Fowler 기자

3. 마크롱-머스크 16일 회동...프랑스 전기차 공장 건설 논의

-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프랑스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도록 설득할 예정임
-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과 소셜 미디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규제 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머스크를 만났을 때도 프랑스가 외국인 투자와 전기 자동차의 선도적 허브임을 강조하며 적극 ‘매력 어필’에 나섰다
-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가 앞으로 프랑스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음

(조선비즈, 2023.06.15) 민서연 기자

1. '전기차 방점' SK E&S, 1년간 계열사 33개 늘어

- 지난 한해간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계열사가 미국 내 전기차 등 에너지솔루션 사업 확장에 따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K E&S의 계열사는 38개 증가하고 5개 감소해 33개 순증했으며, 계열사 증가분의 대부분은 회사의 자회사이자 에너지솔루션 기업인 키캡처에너지(KCE·Key Capture Energy)의 특수목적법인(SPC)였음
- KCE 산하 자회사는 총 96개임 뉴욕주에 25개로 가장 많으며, 텍사스주 21개, 코네티컷주 10개, 인디애나주 5개 등으로 미국 동부와 중북부에 주로 위치해 있음
- SK E&S 관계자는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던 에너지솔루션 사업의 프로젝트별 별도 관리가 필요해 주(州)별로 SPC를 설립했다고 했으며,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대해, SK E&S는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고 내다봤음

(딜사이트, 2023.06.09) 박효선 기자

2. 포스코·SK이노에 삼성전자까지…기후변화 공시 압박 직면

-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투자자 주도 이니셔티브(자율규범단체)인 CA100+가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를 최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켰음
- 12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출범한 CA100+는 작년까지가 목표한 운영기간이었는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운영기간을 새로 정하고 기존 국내 모니터링 대상 기업이었던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외 삼성전자가 추가했음
- CA100+는 68조달러(약 8경7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7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 기업을 선정해 기후변화 지배구조, 배출량 감축, 기후 관련 재무 공개 사항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CA100+는 모니터링 대상에게 강력한 환경정책을 요구하면서 관련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자문을 하고 있어 삼성전자 등의 환경 공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2023.06.12) 이재영 기자

3. LG엔솔·삼성SDI 'ESS 신무기' 총전…유럽 배터리시장 잡는다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유럽에서 처음 개최되는 '인터배터리'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신기술을 공개했음
- LG엔솔은 이번 전시회에서 주택용 ESS 신규 브랜드 '엔블럭(enblock)'을 공개하고, 주택용 ESS 신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올 하반기 유럽에 출시예정임 처음으로 '엔블럭E' 제품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팩을 적용했음
- 삼성SDI는 'SBB(Samsung Battery Box)'를 주력으로 내세웠으며, 해외에서 처음 공개하는 SBB는 ESS 내부 배터리 셀과 모듈 등을 하나의 박스 형태로 구성한 제품으로 설치 장소에서 전력망에 연결만 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음
- 인터배터리는 2013년 시작된 국내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코엑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해 올해 처음 유럽에서 열었는데, 국내외 배터리사 73곳이 참가했음

(전자신문, 2023.06.14) 정현정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6.09(금) ~ 2023.06.15(목)

제공일시 2023 06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투자자 네트워크 CARET, 그린워싱 방지 위한 책임투자 용어 표준화 진행 중

- ESG 투자자 네트워크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용어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음 [\(임팩트윤, 2023.06.15\) 유미지 기자](#)
- 일반적으로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기업이 친환경을 과장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경우를 의미했음. 최근 글로벌 정유사 셸(Shell)의 광고가 영국 광고 심의위원회로부터 광고 금지 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 대표적임
- 그러나 ESG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분야에서도 책임있는 투자(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RI) 용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캐나다의 산업협회 RIA(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는 작년 말 CARET(Collaboration to Align and Refine ESG Terminology)를 구성하고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이하 GSIA),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 국제재무분석기관인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와 같은 지속가능한 투자 네트워크와 협력해 ESG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CARET 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반 발행된 펀드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작됐음. 중소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기본적인 ESG 심사, 참여, 테마 및 임팩트 투자 전략을 사용하여, 규제가 거의 없는 펀드 및 기타 상품을 발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음
- 당시 대부분의 은행과 대형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에서 반등한 후,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면서 ESG 통합을 사용하는 펀드가 주목을 받게 됨
- 이후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자산의 가치는 2016년 23조달러(약 2경9400조원)에서 2020년 35조달러(약 4경5000조원)로 급증했음. 미국의 지속가능투자는 2014년 4조달러(약 5100조원)에서 2020년 17조달러(약 2경1700조원)로 4배 증가했음
- 그러나 지속가능한투자 상품이 점차 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또한 함께 증가했고, 규제 당국은 새로운 규칙으로 대응했음. 유럽증권시장청(ESMA)는 지난 11월,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도록 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과 '이름 규칙 개정안'을 내놓았고, 그밖에 캐나다와 일본의 규제 기관 역시 유사한 규정을 제안했음
- 이와 같은 규제 단속으로 인해 ESG 산업 규모는 축소됐음. 미국 지속가능 책임투자포럼(US SIF)의 '2022년 지속가능한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속가능한 투자 자산이 2019년 말 17조 1000억달러(약 2경1800조원)에서 2021년 말 8조4000억달러(약 1경750조원)로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 뉴욕의 자산관리사 제프리스(Jefferies Group LLC) 역시 ESG펀드로 분류되는 펀드의 숫자가 전년 대비 84%나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투자 의사 결정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다양한 ESG 기준을 적용하는 'ESG 통합(integration) 전략'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임. ESG 통합전략이란 투자 분석 및 투자 결정에 ESG 요소를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말함
- 지난 1일(현지시간) 진행된 '2023 RIA 컨퍼런스'에서 로빈슨 이사는 "ESG 통합전략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혼란의 원인은 ESG가 통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음.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어떤 주제가 채택되고 있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투자의 경우 스크리닝이나 주제별 전략을 볼 수 없다는 것임
- 또 로빈슨은 ESG 통합전략 외에도 4가지 다른 ESG 전략(스크리닝, 주제별 투자, 스튜어드십 및 참여, 임팩트 투자)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CARET는 US SIF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ESG 통합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16곳의 대규모 자산운용사 중 8곳이 특정 ESG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또는 특정 자산 클래스에 대한 기준만 제공했다고 말했음. 이어 ESG 통합전략을 재무 위험 관리에 통합해 ESG 스크리닝 또는 소셜 또는 환경 임팩트와 더 관련이 있는 주제로 구별할 것을 제안했음
- CARET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투자 산업을 새로운 용어로 정의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또는 규제 기관이 새로운 용어를 마케팅 규칙에 통합할지는 아직 미정임